

#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 나훔

## -복음으로 여는 나훔서-

나훔 1:1-7, 누가복음 11:32

정윤돈 목사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언약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시 회복해주시고 237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운동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응답과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본문을 보면 나훔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나 1장 7절에 보면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주고 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약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BC.760년 경)를 통하여 회개의 복음을 받았지만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여 다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우리들과 한국교회 또한 복음,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한때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지금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과 테러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현상이 되고 말았다. 니느웨는 현재 지명으로는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한다. 한국의 자이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다. 한때는 이슬람 테러단체인 IS의 본거지가 있었고, 고대 앗수르와 니느웨의 유적들을 파괴하는 사건도 일어났던 지역이다. 니느웨를 향한 나훔의 멸망의 메시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라크의 모술과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 국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뿐이다. 즉,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이 절실한 현장이다. 영적으로 볼 때 니느웨 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세 가지 도시와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 성은 여리고 성, 니느웨 성, 예루살렘 성이다. 여리고 성은 불신앙이고, 니느웨는 영적문제이고, 예루살렘 성은 오직 예수가 안 되는 종교적인 성이다. 우리는 잘못된 이 성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임하실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도전하는 것이 언약적 7대 흐름이다. 니느웨 성의 영적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니느웨 성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사탄 흑암의 세력이다. 앗수르와 니느웨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정사와 권세의 세력이다. 또한 니느웨 성이란 우리들에게 근본문제, 영적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옥문제, 후대문제를 가져다주는 사탄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의 견고한 성을 만들어야 한다. 영적싸움이다.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해결해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동원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

1. 첫 번째로 니느웨 성의 멸망에 관한 내용과 그 영적인 의미를 나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은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의 멸망을 의미한다.

(1) 니느웨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이다. 사탄의 울무, 틀, 함정에 빠지면 주변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불신자의 상태에 빠져있던 니느웨 사람들은 사악하고 잔인한 침략행위를 많이 했다. 앗수르는 BC.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남유다를 침공하였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서 13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에 몰살되는 사건으로 남유다 정복을 실패하게 된다. 앗수르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피해를 주었다. 이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이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희생, 용서, 평화,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순종과 복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채찍을 맞고 순종하였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의 주인이 되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되어 주셨는데 교만해서는 되겠는가. 가정,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조금만 떠나면 교만이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바꾸어야 한다. 조금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늦더라도 성령인도따라 가야 한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눈물, 피, 땀을 흘리셨다. 우리도 가정, 직장, 교회를 위해서 피, 땀, 눈물을 흘려야 한다. 이것이 안 되면 기도해야 한다.

(2)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물로 멸망시켰다. 수천 년 후에 물에 잠긴 니느웨가 발견되었다. 나훔서 1장 8절에 보면 물로 멸망할 니느웨를 예언하고 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물속에 잠긴 앗수르 니느웨를 발견한 사진이 있다. 니느웨 발굴은 1842년 프랑스인 ‘에밀보타’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다. 그리고 1846년부터 7년간 영국인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살만에셀이 궁전터를 발견하였고 1853년에 라삼의 발굴을 통해 이슬람바니팔 궁전과 16,000점의 점토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굴들을 통하여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과 대적들은 영원히 땅과 물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3)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 전체의 내용은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특별히 설명을 드리자면, 2장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니느웨를 멸망시킨 바벨론 군대의 방패와 갑옷이 붉은색이었다고 한다. 이 붉은색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2장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니느웨 성을 발굴해 보니 니느웨 성 주변에는 넓이가 50M이고 깊이가 18M가 되는 해자가 있었다고 한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은 망하고 말았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또 2장 10절에는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낮이 빛을 잃도다’ 우리를 대적했던 사탄과 귀신은 낙담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니느웨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

러분 과 가정, 나라 안에 있는 대적이 박살나게 된다.

(4) 네 번째로 나훔서에는 니느웨를 피의 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말씀한다. 그러면서 3장 2절에서 3절에는 당시 전쟁에 광분했던 니느웨 성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나훔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다. '회회 하는 채찍 소리, 웅웅하는 병거 마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뼈,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같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3장 4절에 보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근본문제의 원인은 여신을 숭배했던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여신숭배의 시작은 바벨탑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라마다 여신숭배의 문화가 있다. 무당도, 마리아 숭배도 그 뿌리는 바벨탑사건이다. 그러면 왜 사탄은 여신숭배를 하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 하나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데 '여자'를 섬기게 만드는 것이다. 정확히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전쟁과 재앙이 그 나라와 현장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 나훔은 니느웨가 이집트의 도시 노아몬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나훔 3장 8절에서 11절이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니느웨도 노아몬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탄의 나라 세상나라인 애굽과 앗수르도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승리의 언약을 미리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6) 나훔서 마지막 절인 3장 19절을 보면 앗수르의 멸망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결국 사탄의 나라, 세상나라는 멸망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나훔서 3장 19절을 보겠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사탄의 머리박살)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 2. 두 번째로 나훔서에 담겨 있는 복음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1) 첫 번째 복음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이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기 약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평생을 니느웨 성과 앗수르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일시적이었고 다시 잔인하고 포악한 침략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바로 회개해야 한다. 나훔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와는 회

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대적들을 반드시 보복해 주시고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솥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말씀하신다.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도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에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한다.

(2) 여호와 그리스도는 선하시며 우리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산성이다. 나훔서 1장 7절이다.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여리고 성이나 니느웨 성이나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산성되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전도의 5가지 문인 다락방, 탐사역, 미션홈, 전 문교회, 지교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들 자신이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의 대열에 서게 된다.

결론으로 오늘도 나훔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보이는 앗수르와 니느웨도 그리스도와 복음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사탄의 본거지인 앗수르의 니느웨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현실에 속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들이게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장 강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 24시간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강단말씀을 붙잡고 성실히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 과거에 부러워했던 앗수르와 니느웨같은 세상 것은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편집, 설계, 디자인해 주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매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조금만 집중해 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미래와 계획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을 사탄의 나라, 세상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나와 우리 가문의 니느웨가 무엇인지 적어보기를 바란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근본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박살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것을 선포해 보기를 바란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 안에서 성도들의 개인과 가문이 참사랑 RUTC와 3천 제자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승리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Nobody의 현장에서 이 복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현장인데 우리들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고 흑암세력을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군대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